

레슬리 알렌(Leslie Allen) 박사, 에스겔, 8강, 군주제의 몰락과 부활, 에스겔 17:1-24 및 19:1-14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Dr. Leslie Allen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군주제의 몰락과 부활, 에스겔 17:1-24 및 19:1-14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에스겔서 8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7장부터 19장까지 살펴보면 그 내용의 문학적 복잡성이 예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순서는 17장과 19장이 군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8장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분명히 한 쌍의 장인 17장과 19장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한 17장 1절부터 27절과 19장은 왕정을 부정적으로 다루면서 왕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반면, 17장 22절부터 24절은 희망과 약속의 관점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다루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전체적인 문학적 단위는 17~19장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장들을 하나로 묶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18장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섹션의 두 끝 부분, 그리고 중앙 주제, 즉 군주제의 단일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17시 22분에서 24시 사이에 기분이 바뀌는 상황은 아직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에스겔서 제2판의 증거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의 예언 사역의 두 번째 부분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87 이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전반적인 태도는 우리가 587 이후 메시지와 연관시키는 긍정적인 주제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587년 이후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17장과 19장의 앞부분에서 왕권이 받아야 했던 비난 이후 긍정적인 미래로 다윗 왕권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왕권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헌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나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왕정의 역사는 구약성서의 실패의 역사이다. 일부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는 신학적으로는 좋고 역사적으로는 나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당시의 나쁜 군주제의 비극에서 원래의 이상에 부응할 새로운 왕권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옮겨감으로써 이 두 가지 대조와 일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이중 메시지를 포착하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섹션에서 그는 17:21~21과 19장에서 나쁜 옛 군주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 17:22~24에서 좋은 새 군주제에 대한 짧은 부분을 추가합니다. 40대에는 사실 좋은 관점에서 왕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관련된 17장의 첫 부분은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은유를 통해 군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설명될 비유는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절은 큰 날개와 긴 깃을 가진 큰 독수리가 레바논 등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 은유는 10절까지 아주 길고 확장된 은유로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11절부터 21절까지 역사적 용어로 긴 설명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부터 시작하여 이 은유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은유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책략입니다.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들의 메시지에 대한 예를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에스겔은 그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초기 독자들과 청중들이 우리보다 군주제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은유적 언어로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서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패역한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글썄요,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반항적인 집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군주제, 왕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은 포로 생활에 있던 고국에 있던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장에서 이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12장 9절에서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왕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라 그래서 반항적인 집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원형, 중심, 요약, 실제 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은 국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반역적인 가문은 왕, 유대 왕에게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왕권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 정부를 이끌었고, 정부가 국가 정책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선두에 있는 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일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전쟁 포로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왕과 고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것은 597년 유배 인데, 이 경우 예루살렘의 엘리트, 정부 관료, 중요 제사장 등의 첫 번째 유배이며 에스겔 자신도 끌려가서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느부갓네살은 젊은 왕 여호야긴을 유배시켰습니다. 바빌론과 그 일부로 가서 그를 자신이 지명한 시드기야로 대체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왕의 씨 중 하나 곧 왕의 씨 중 하나를 데려다가 그와 언약을 세워 맹세하게 하였더라.

당시에는 몰랐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밝혀진 시드기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속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윗 왕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왕족의 자손 또는 씨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고, 느부갓네살의 신실한 가신이 될 만큼 순종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왕조는 시드기야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대군주와 그의 새로운 가신 사이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나라가 낮아지고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서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에는 조약, 곧 봉신 조약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급자, 하급자가 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 언약이 맺어지고, 조약이 맺어졌으며, 고대 조약은 충성의 맹세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약이 체결될 때 그 조약의 일부로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는 종교적 풍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신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저주를 봉인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메시지가 계속되는 동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아마도 몇 년 동안 이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랜 정치적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바빌로니아 제국의 남서쪽 국경에 있던 유다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 조약, 이 제국주의 멍에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는 또 하나의 강대국, 국력이었던 이집트에 제의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바빌론의 목을 졸라매는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입니까? 그리고 이집트로부터의 보증을 받아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정치적으로 반역할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예레미야서에는 사신들이 이집트로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서 군대를 보내라. 우리는 당신의 군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군대가 왔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잠깐, 바벨론 군대는 포위망을 뚫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유다 남서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애초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인 바벨론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와 유다를 그 혼란에서 구출해 달라고 애굽에 호소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습니다. 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드기야는 야훼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에 사절을 보내 말과 큰 군대를 주도록 하여 그를 반역했습니다. 글썄, 아마도 이것은 포위 공격이 일어나기 전일 것입니다. 그는

성공할 것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는 조약, 정치적 조약을 깨고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야훼와의 신학적 언약이 아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의 정치적 언약이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왕으로 삼은 왕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가 맹세를 멸시하고 그와의 언약을 어겼으니 그가 바벨론에서 죽으리라. 많은 생명을 앗아가려고 경사로를 쌓고 공성전을 벌이는 전쟁에서는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가 그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군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여전히 미래로 간주되는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손을 내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약속했고, 말하자면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신실할 것이라고 야훼를 통해 약속했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죄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 정치적 조약을 어긴 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17장에 기대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킹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역대기는 분명히 그의 에스겔서를 읽었으며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가 36장과 13절에서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 것도 반역했습니다. 여기 17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 기사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기의 후기 책에는 에스겔의 매혹적인 2차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의 군대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17장에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1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반역한 가문과 포로로 잡혀가려는 생각 사이의 연관성을 읽습니다. 그것은 포로들 사이에서 왕이 꼭 필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 패배하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유배당하는 것에 대해 꽤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12장에 있는 시드기야의 포로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7에서는 반항적인 가문 외에는 이유가 없었으나 지금은 정치적인 배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첫 번째 영웅들이 알고 있는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10절은 확장된 은유이다. 이는 이러한 미래의 사실을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바논으로 오는 큰 독수리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느부갓네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독수리가 백향목 꼭대기를 잡고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왕, 불과 3개월 동안 재위했던 젊은 왕이다. 18세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무역의 땅이자 상인의 도시로 묘사됩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 큰 도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독수리가 땅에서 씨를 취하여 기름진 땅, 곧 물가에 있는 식물에 심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처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사실상 왕족의 일부이고, 왕족의 자손, 왕족의 씨입니다. 그것은 왕가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사실 그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권에서는 한동안 일이 잘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바친 한 오래전부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싹이 나서 키가 작아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가 그를 향해 향했습니다. 그 뿌리는 여전히 그를 향하고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뿌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קים 대신하여 선택된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에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드기야에게 충실한 동안 그의 통치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또 다른 독수리, 라이벌 독수리, 사실은 이집트 파라오 쪽으로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집트와 연결시켜 바빌로니아의 멩에를 쳐부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자원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보라, 이 포도나무가 그를 향하여 곧 바로를 향하여 뿌리를 뽑았으니 그가 그 심긴 침상에서 물을 받으려 함이니라. 물이 넉넉하여 좋은 땅에 옮겨져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귀한 포도나무가 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9절에서 이 새 언약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 새 언약이 애굽과 더불어 형통하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 그 열매를 썩게 하고 시들게 하며 싱싱한 잎사귀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이집트의 충성에 이식되면 그것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데 강한 팔이나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풍이 불면 잘 자랄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자란 침대 위에서 시들어버리겠느냐? 이것은 검색 질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동풍, 즉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모든 사업에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새와 식물이라는 측면에서 확장된 은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는지, 아니면 바치다 에 대한 해석,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은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건 뭐죠?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전환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정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에스겔이 먼저 전한 나쁜 소식의 복음에 나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웅이었던 전쟁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전에 누렸던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군주제에도 의존하는 안정.

군주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글썄요, 사실 그것은 보호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1장부터 21장까지에서 처음에는 은유를 통해, 다음에는 단순한 해석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애가(애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가 4장.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는 백성,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남아 포로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20년에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시드기야의 포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여, 우리 생명의 호흡이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희망의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22~24장으로 넘어가서 왕실 이야기에 대한 매우 다른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587년 이후 에스겔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머지않아 이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파괴를 따라갈 뿐이지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삽입된 내용은 계시물 587 메시지의 일부인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제적 연결이 있습니다. 군주제와 동일한 주제이지만 이제 그것은 조류의 전환과 군주제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에서 24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 구절에 대한 일종의 왕실 후기와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특히 이사야 9장과 11장, 예레미야 23장에서 왕조에 관한 희망의 다른 예언 메시지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백향목 싹을 맡았는데, 실제로는 여호야긴이었던 유다 왕이었습니다. . 그러나 22절에 이르면 이 개념을 깨닫게 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할을 맡아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속국의 왕이 될 것이지만 이제 대군주는 하나님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행정부의 변화는 매우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그 싹은 뿌리를 내리고 번영을 누리며 세계적인 통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인간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사에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 축복받을 때의 표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좀 더 정경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가계의 왕에게 우주적 통치를 약속하는 시편 2편과 110편과 같은 왕의 시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전 에 다윗 왕조의 매우 슬픈 이야기였던 이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8을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동일한 군주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윗 왕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에 관한 은유와 평이한 언어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17장의 전반부와 매우 일치합니다.

이 역시 19장에 나오는 유다의 군주제, 사실상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장과 19장의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둘 다 에스겔이 유다와 현 상태의 다윗 왕과 그 모두에게 조속히 귀환하려는 포로들의 헛된 희망의 관에 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17:22부터 24절까지가 부정성을 깨뜨리고 군주제 제도의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을 방금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심판 후 약속 중 하나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래에 다루실 것에 대한 일종의 메시아적 견해를 조성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자체 주장을 통해 붙잡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19장 뒤에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논리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 다음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9장 사이에 이런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상 17:22부터 24까지는 17:1부터 21까지의 긍정적인 보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권의 후반부에도 전반부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전반적인 은유를 가지고 거기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면 19장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 언어는 이전 메시지, 즉 17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19장보다 17장의 끝 부분이 더 잘 맞습니다. 그러나 19장은 엄밀히 말하면 1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문학적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초판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삽입한 다음 18장을 삽입한 것은 에스겔서 제2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번에 후자의 관점을 다루겠습니다. 19장에서는 심판의 신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은 매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곡을 불러라. 그리고 이것은 애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19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애가라고 하여 애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애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다양한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탄식을 통해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군가가 죽었거나 끔찍한 비극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장례식 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애도입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것을 애도하는 장례식 애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로 장례 애도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긴 예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와 1장에서 장례 애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삼은 왕에 대해 애도합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은 왕세자 요나단에게 항상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 애도를 읽는데, 그 애가에는 강자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에 대한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도의 어조로 말하는데, 이 영웅들, 이 강력한 영웅들이 전투 중에 쓰러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입니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전쟁 무기가 멸절되었습니다. 그 둘은 무기만큼이나 훌륭했지만, 이제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전쟁의 무기를 잃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진짜 애도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신탁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신탁은 실제로 '아니요, 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애도의 내용, 뒤를 돌아보는 내용, 죽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신탁이 행한 것, 즉 애도를 사용한 것은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애도는 이제 예언적으로 재사용되면서 미래의 파멸에 대한 예측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가오는 파멸을 넘어서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비극을 되돌아보며 이미 일어난 일처럼 애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시지 역시 은유를 갖고 있지만 애도에 은유를 종속시킨다.

우리는 두 가지 별도의 은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을 훑어보면 2절부터 9절까지 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비유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 포도나무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별도의 은유가 있지만 둘 다 애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기에 실제로 한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애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 다 군주제를 주제로 뭉쳤습니다. 2절에 보면, 사자 중에 네 어머니가 암사자 같으니라. 그리고 이것은 단수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미 또는 암사자는 대대로 왕을 배출한 다윗 왕조이다. 그리고 그는 물론 597년부터 바빌론에 있었던 전쟁 포로들의 실제 영웅들에 대해 수사적으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 이 왕조는 연속적인 왕 세대를 배출했습니다.

19장에는 17장에서 얻은 분명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애굽으로 끌려온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여호아하스가 전임 왕이 아니고 유다의 그 이전 왕이었고 여호야긴으로 대체되고 바로가 그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대에 걸친 왕조 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 새끼들 중에 또 다른 새끼 곧 새끼 사자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는 여호야긴이니라 좋아요. 그러나 사실 5절부터 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이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 어느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온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조가 젊은 사자, 유다의 새로운 왕 시드기야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또 다른 새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는 597년부터 58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군대의 최종 공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속국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민족이 각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그물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렁이에 갇혔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목소리는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목소리는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를 포도나무로 바꾸는 평행 메시지, 평행 탄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한 줄기는 통치자의 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드기야가 한동안 그의 모든 힘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로 인해 뽑아져 땅에 던져졌습니다. 동풍이 그것을 말랐다.

광야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17장의 첫 부분에서 들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불이 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강한 줄기도 없고 다스리는 홀도 없느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의 불로 덮고, 궁전까지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도 없고, 군주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왕가의 종말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도이며 애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왕정의 종말 이후, 한참 뒤를 돌아보는 편집 결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논평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애도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애도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애도, 예언적 애도, 좋아요,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슬퍼합니다. 따라서 19장에는 실제로 미래의 사건을 언급하는 과거 시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시 언급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었지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애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군주제의 상실에 대해 슬퍼합니다. 이것이 17장과 19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우리는 18장 중간 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왕의 틀에 들어맞는지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18장에서 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레슬리 알렌 박사와 그의 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이것은 세션 8, 군주제의 몰락과 부활, 에스겔 17:1-24 및 19:1-14입니다.